

결여/부재의 정동적 욕망:
팬데믹 상황에서의
한 요양보호사 사례를 중심으로

정종민
전남대학교

결여/부재의 정동적 욕망: 팬데믹 상황에서의 한 요양보호사 사례를 중심으로*

정종민

전남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소 연구원

주제분류 사회과학, 인류학, 의료인류학

주제어 돌봄대화, 돌봄부정의, 돌봄노동자, 부재(결여), 욕망, 정동적 연결성

요약문 본 연구는 적절한 보상과 사회적 보호가 결여/부재한 상황과 마주하며 생성·발전하는 돌봄노동자의 정동적 욕망을 분석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담보로 타자를 돌볼 것을 요구하는 도덕적 붕괴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치화를 조심스러워하면서, 현장을 지키는 한 요양보호사와의 돌봄대화에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신체를 통해 표현되고 수행되는 돌봄노동자의 연결 (불)가능한 존재론적·윤리적·정치적 분투를 정동의 관점에서 추적하고 지도화한다. 이를 통해 돌봄노동자의 일상과 노동에 내재화되어 잘 드러나지 않는 돌봄부정의의 역사적·문화적·계급적·젠더적 폭력성을 폭로한다. 나아가 위태롭고 취약한 상황에서 화자의 신체를 통해 강렬하게 다가오지만 표상하기 어려운 존재론적·윤리적·정치적 힘으로서의 정동적 욕망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결여/부재에 포섭되어 길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미약하지만, 끊임없이 상응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생성적 차이로 드러나는 정동적 존재의 다른 신체들과의 연결 가능성을 제시한다.

I. 서론

“배신감 드러브러요. 배신감! 지금은 나라에서도 이제 이판사판도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무서웠으면 진짜 1차 접종할 때 그만뒀었죠. 요양보호사가 아주 중요한 ... 저기 진짜 지나고 와서 보니까요. 마루타예요. 뭐 80대 이상 뭐 노인부터 일차 접종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의료인 관련해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21S1A5B5A16078297)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또한 이 논문의 초고는 2022년 6월 11일 <작은 것이 강력하다: 뉴노멀 시대, 변경과 마이네리티의 인류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문화인류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토론에서 유익한 의견을 주신 김관욱 교수님과 귀중한 논평을 보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 요양보호사가 접종이 시작됐어요.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은 화이자 맞았어요. 선생님들 아스트라제네카 줬어요. ... 저 죽는 줄 알았어요. 4-5일을 오만 사지가 아리고 ... 근데 이상하게 어르신들은 맞고 쿵 심어버려요. 식은땀이 나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께 공문이 왔는데 근무를 하시다가 혹시 주사 맞고 부대끼면 하루 이틀은 병가를 준다거나 뭐가 있었습시다.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막 마스크에 땀이 차도록 했었어요. 앞이 어질어질할 정도로 했었어요. 목욕 선생님은 다리에 염증이 생겼는데 원인 불명이 되고 그래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 양반들이 그냥 막 했던 거 나는 최소한 혜택을 받은 줄 알았어요. 내가 어르신을 모시는 분이랑이까 여기 혜택을 받는가 보다. ... 그 약품 지금 다 아프리카로 갔다잖아요!” (김화진(50), 요양보호사)

어르신들은 백신접종 후 발에 쿵을 심을 정도로 일상에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김화진¹⁾은 예방 효과가 미약하다고 소문이 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 ‘당한’ 후 식은땀과 오한이 겹친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슬픈 웃음을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쿵 심어버려요.” 라고 말했다. 정부의 필수노동자 영웅 만들기에 대한 강한 분노를 해학으로 표현한데서 어떤 형언하기 어려운 묵직함이 느껴졌다. 이렇듯 김화진의 말씨, 표정, 목소리, 몸짓, 침묵 등은 적절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규정할 수도 없어 쉽게 지각하기 어렵지만, 필자의 신체와 만나면서 어떤 변이를 일으키는 강도의 힘으로서의 “정동적 공감(affective empathy)”을 추동했다(Bayram and Holmes, 2020: 821). 그리고 대화가 진행될수록 아주 당연한 듯하지만, 제대로 답해진 적이 없는 질문, 지난 3년 팬데믹 상황이라는 취약한 노동 환경에서도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지킨 동력은 무엇이며, 여전히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킬 것 같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였다.

본 연구가 돌봄 현장에서 정동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끊임없이 마주하는 신체들 사이의 이행들, 움직임들, 흐름들로 요약될 수 있는 “일종의 잠재력이며 존재의 역량”으로서의 정동(마수미 2018: 6)은 인적·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제도적·사회적인 보장·보호·인정이 결여/부재한 돌봄부정의(김희강·박선경, 2021)한 상황을 살아내는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인식론적·존재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는 팬데믹 시기 돌봄노동자의 돌봄을 다뤘던 사회적 소통(임종석·정의철, 2023)이나 돌봄 노동의 현상학적 연구(김지향·한숙정, 2021; 조창완·안정희, 2022) 등에서 소홀히 다뤘던 “몸체의 삶(생명력)”으로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지각하고 생각하는” 힘에 대한 관심이다(마수미, 2018: 6). 무엇보다 외주화·젠더화·자본화 과정에서 수동적이며 위태로운 존재로 간주되는 돌봄노동자들(정종민, 2022)의 “주체성과 정치적인”(권명아, 2022: 188) 실천을 정동적 주체화 과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한다. 나아가 정동하고 정동되는 신체적 “부대끼와 엇갈림, 관계와 힘들의 파동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궤적”(권명아, 2012: 22)들은 개별 노동자의 지역적·계급적·젠더적 분화에 따른 복잡성을 추적·기술·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인 틀을 제공한다(정종민, 2022).

따라서 본 연구는 정동 개념이 무엇인가를 두고 벌이는 이론적 논쟁보다는 소수자 연구의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대상자 보호 규정에 따라 개인과 기관식별 정보는 익명화하였다.

“절박함”과 “학문 방법의 정치성”의 도구로서 정동에 접근한다(권명아, 2022: 187). 그리고 돌봄노동자가 삶과 노동을 이야기하는 정동의 담론적 실천의 현장으로서 “돌봄대화(care conversation)”에 주목한다(캐슬린 린치 외, 2016: 21). 특히 전라남도 하늘군에서 여성·넷째딸·엄마·‘이혼녀’·한부모·중년의 돌봄노동자로서 인지증²⁾과 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김화진의 사례를 중심으로 결여/부재의 정동적 궤적을 추적·기술·분석하고, 그 의미를 밝힌다.

이를 통해 일상적 돌봄노동에서 김화진이 경험하는 결여/부재가 어떻게 돌봄 과정에서 기대·희망·꿈 혹은 잠재적 가능성으로 수행되며, 삶의 질감이 묻어나는 생생한 정동적 경험으로 물질화되는지를 밝힌다. 이어서 자신이 바이러스의 피해자이자 전파자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족을 돌봐야 하는 도덕적 붕괴상황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분노의 정동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상황을 제시하고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의 역사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 부정의를 폭로한다. 그리고 결여/부재의 정동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미세한 차이로 드러나는 것으로 개인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한도 내에서 변화를 추동하거나 상상하는 정동적 욕망(affective desire)(Gorton, 2008: 19)³⁾을 제시한다. 나아가 김화진의 체화된 돌봄은 일상에서 단지 젠더와 관련된 한국적 가치 및 이데올로기에 포섭되고 은폐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지만, 끊임없이 갈등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위태롭게 드러나는 정동적 주체화 과정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돌봄노동자들이 ‘따로 또 함께하는’ 돌봄노동에서 (불)가능한 정동적 연결가능성을 드러낸다.

II. 결여/부재에서 정동적 욕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은 돌봄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켜온 영웅으로 호명될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가족과 자기 돌봄이 불가능한 모순적인 돌봄부정의의 현실도 드러냈다(정종민, 2022). 하지만 돌봄의 위태로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화진과 같은 요양보호사들의 존재, 더 정확히 말하면 소진되는 돌봄노동자의 몸을 통해 표현되고 수행되는 여기-지금의 현실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바야흐로 돌봄현장에서 마주하는 피곤에 찌든 돌봄노동자의 표정과 축 처진 어깨는 이러한 결여/부재가 단순히 현존의 반대로써 형이상학적인 상상에 머

2) 최근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일으키는 병명, 예를 들어 뇌전증(간질), 조현병(정신분열병), 한센병(문둥병) 등에 대한 병명 개정이 있었으며, 같은 맥락에서 정신이상 혹은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치매라는 용어 대신 인지증을 사용한다.

3) 본 논문에서는 크리스틴 고튼(Kristyn Gorton)(2008)의 욕망으로의 접근법을 참조하여 정동적 욕망을 개념적 정의의 대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일상에서 욕망의 행함(doing), 즉 욕망의 수행성을 통해 접근한다. 따라서 정동적 욕망은 동일시와 응시를 통해 인정을 생성하며, 서사뿐만 아니라 신체에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다르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반응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존재의 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며, 하나의 사고방식이나 지성으로서뿐만 아니라 연결과 관계를 지원하며, 포함 또는 분류 불가능한 표현을 생산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무르지 않고 돌봄의 (비)물질적인 조건 및 담론들과 상응하며 드러난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두텁게 기술할 것을 요청받는다.

결여/부재의 정동에 관한 연구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미켈 바일(Mikkel Bille) 외(2010)는 부재의 실존적 의미가 현존하는 물질만큼이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결여/부재는 존재론적인 없음이 아니라 망자의 사진, 지식의 부재, 건물 잔해, 침묵, 질병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관여하며, 특정한 시공간적 상황에 따라 물건, 그림, 문자, 담론, 기억, 상상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물질화된다. 바일과 그의 동료들은 건물 잔해, 고고학적 유적·유물, 갈 수 없는 땅, 망자의 유품, 사라진 사람·물건·장소·사건 등에 대한 사진·기억·감각·감정·상상 등을 통해 부재를 추적·묘사·분석함으로써 사라진 사람과 사물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사회적 구조와 가치를 포함하는 부재의 ‘있음’을 밝혔다. 무엇보다 부재에 관한 연구를 사고실험에 머물지 않고 부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신체를 통해 경험되는지의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물질과 비물질,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둘 사이를 횡단하는 교차적 행위성을 밝혔다. 동시에 이러한 모순적인 부재의 물질화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서 “부재의 현존(the presence of absence)”으로 규정하고, 물질적 범주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Bille et al., 2010: 4).

이러한 비물질의 물질화는 돌봄노동의 의료 및 고용보장, 인권보호, 건강증진 등이 제도적·관습적·정책적으로 결여/부재한 현 상황을 어떻게 접근하고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적·실천적·존재론적 틀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의 법·제도·행정 중심의 논의, 예를 들어 임금실태와 처우개선(함선유, 2020), 인권(김정희·김광병 2019), 보험제도(최보람, 2022), 돌봄 정책(석재은, 2018) 등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현장의 목소리를 강조한다, 즉 개별 돌봄노동자들이 직접 몸을 통해 지각하고 상상하고 기억하고 행하는 돌봄의 수행성에 더 주목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타자화된 기대나 희망으로 존재하는 결여/부재가 아니라 자신과 긴밀히 연결된 사회적·(비)물질적 연결망을 통해 생산되고 재구성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는 돌봄노동자 입장에서 여기-지금의 돌봄현실을 구성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과거로부터의 잔여 혹은 흔적에 대한 비판적 대안뿐만 아니라 도래하지 않는 돌봄공공성에 대한 개별 신체의 (비)물질적이며 담론적인 수행을 포함하는 실천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캐슬린 린치(Kathleen Lynch) 외(2016: 20)는 젠더화된 돌봄불평등을 야기하는 “매개이자 영역”으로 “경제체계, 정치체계, 사회-문화체계, 정동체계”를 지적하면서 그동안 소홀히 다뤘던 정동적 실천에 주목한다. 다시 말하면 돌봄은 진공상태에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을 요구하고 소진되는 노동임을 강조한다(앨리 러셀 흑실드, 2009). 나아가 돌봄이 사랑·도덕·효 등의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물질적·시간적·공적인 체제 및 조건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육체적·정신적·인지적 활동들과 얽히고설킨 비물질적 노동(김관옥 2020; 2022; Hardt 1999)으로 확장됨을 규명한다. 특히 돌봄대화를 통한 정동적 평등에 관한 연구는 정동의 흔적을 발견하고 부재가 문제로 드러나는 과정을 추적하고 묘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자 틀을 제공해준다. 구체적으로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에 내재하는 돌봄의 사회·문화·정치·경제·정동 체제가 어떻게 상호 긴밀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얽혀 있고 작동하는

지를 보여주고, 그 관계가 정동적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기존의 규범적 접근을 통해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은 관계·체계·구조·담론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행하면서 미끄러져 코드화가 불가능한 관계적이며 비규정적인 실천으로서의 정동에 주목한다. 여기-지금울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돌봄부정의한 순간에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돌봄노동자에게 생에 대한 무관심과 관심 사이에서 무한히 작동하는 활력과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욕망을 추동하기 때문이다(정종민, 2022: 332). 더불어 인지증과 사는 사람들의 존엄의 조건으로서 정동을 통한 “상호의존과 상호연결성”(박언주, 2020: 432)이 돌봄노동자를 포함한 주위의 세상과 부대끼며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정동적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한편, 돌봄부정의로 요약되는 ‘좋은’ 돌봄의 결여/부재에 대한 공적·사적 논의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논문이 결여/부재가 추동하는 우연적·관계적·비결정적인 신체들의 힘, 능력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비)물질적 세상과 조우하며 이들 사이에서 흐름과 이행으로 생성·발전하는 정동적 욕망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라 아메드(2019: 44)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대상 “주위”를 맴돌며, 시간을 거쳐 신체에 “누적되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sticky) 우연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느낌과 분위기로 생성·발전하는 정동적 변환을 언급한 바 있다. 현실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피곤에 찌든 몸을 감당해야 하고 미리 주어지지 않아 완벽하게 알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돌봄노동자들에게 ‘희망’이라는 약속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탈주를 꿈꾸는 ‘불온한’ 욕망으로 찾아온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 욕망은 더 큰 자본과 생명통치에 포획당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탈주는 항구적인 피로와 불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현실을 회피하고 탈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미분화되어 덜 존재하거나 개념화되지 않은 잠재력의 움직임이며, 이질적인 신체들을 연결하는 흐름들을 통해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III.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1년 7월부터 약 1년간 서울·광주·전남지역 재가복지센터와 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와 나눴던 15건의 돌봄대화 중 김화진의 사례에 주목했다. 물론 김화진 한 명의 돌봄노동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상과 노동을 전형화하거나 일반화하고자 함은 아니다. 하늘군 20여 개의 재가복지센터 중에서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서 기피 대상으로 낙인찍힌 돌봄수요자를 잘 돌보는 것으로 정평이 난 그녀의 돌봄 기술이 궁금해서만도 아니다. 오히려 김화진과의 돌봄대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강도의 차이로 드러나는 감각적·감정적·정동적 실천을 중심으로 한 그녀의 돌봄 서사가 나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김화진은 2010년 8월 14일 제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후 지금까지 돌봄현장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로 그녀의

지난 12여 년의 경험을 통해 지역의 돌봄사회화 과정을 반추해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돌봄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김화진의 풍부한 표현적·수행적인 정동적 욕망은 기존의 규범적 연구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비물질적인 정동노동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공했다.

우선 바람재가복지센터의 기관승인과 함께 건네받은 잠재적 연구참여자 명단을 통해 김화진을 알게 되었으며, 개인전화를 통해 돌봄대화 참여 여부를 물었다. 첫 통화에서 김화진은 자신의 얘기가 가치가 있겠냐며 한 번도 자신의 얘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해본 적도 없다며 수줍은 듯, 석연찮은 듯 반응했다. 어렵게 마련된 만남은 김화진이 원하던 대로 쉬는 날, 그녀의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이뤄졌다.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2층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커피를 권한 후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에 관한 설명을 했다. 김화진은 답답하다며 창문을 열어도 괜찮은지를 물었다. 창문을 열자 2022년 3월의 신선하면서도 쌀쌀한 아침 공기가 피부에 느껴졌다. 이제야 좀 시원하다며 김화진은 주문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으며, 동의서에 서명했다. 마르고 검게 그을린 피부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김화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팬데믹 상황에서 누적되는 노동의 강도와 감염병 위험에서 오는 직업 스트레스가 전해지는 듯했다. 돌봄대화는 딱딱한 개인정보를 먼저 묻는 대신 ‘자연스럽게’ 어떻게 돌봄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했다. 김화진은 하소연하듯이 지난 12여 년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필자는 김화진이 말하는 속도, 침묵, 강약에 맞춰가며 말과 추임새를 넣어 호응했으며, 대화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추가 질문을 이어갔다. 3시간여 동안의 대화는 돌봄 입문 과정에서 시작해서 직업, 가족관계, 팬데믹 상황에서의 돌봄과 일상생활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돌봄대화 일주일 후 김화진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하늘군에서 지정한 자가격리 숙소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안부 전화를 했다. 김화진은 약간의 코감기 증상이 있을 뿐 괜찮다며 지내는 곳의 이름을 따라 비유적으로 “파라다이스(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편하다고 했다. 전화 통화는 안부인사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 어떻게 대체 돌봄이 수행되며, 병가수당, 돌봄의 복귀과정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서 확진에 따른 지역공동체의 반응에 이르기까지 40여분 가까이 길어졌다.

두 차례의 대화를 통해 필자는 김화진의 삶과 노동을 조망할 수 있는 구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몸의 움직임과 말을 통해 드러나는 김화진의 돌봄 경험은 단순히 개인의 기억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과거의 사물/사건에 대한 단순한 재현도 아니었다. 오히려 현재 김화진이 과거의 사회적·(비)물질적적인 신체 경험들에 대한 접근·태도·성향 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수행적 실천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필자는 김화진이 생애과정에서 마주했던 사람·대상·관념·사건·전통 등을 평가하고 전유하고자 하는 (비)물질적·담론적 실천을 추적할 수 있었다. 더불어 돌봄대화가 이뤄지는 상황과 필자와 김화진 간의 정동적 공감의 사례를 담은 현장 노트뿐만 아니라 채록을 동시에 그리고 반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정동의 흐름과 이행의 흔적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정동적 실천의 지도화 과정을 통해 김화진의 정동적 욕망의 배치와 그 작동 매커니즘을 알아냈으며, 결여/부재의 정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IV. 생동하는 결여/부재들과 횡단하는 몸

김화진은 전라남도 하늘군의 한 가정에서 태어나 불평등한 젠더 역할이 교육되고 양육되고 강화되는 삶을 살았다. 여성으로 태어난 운명을 따르라는 친정어머니를 닮기 싫어 일찍 사회생활 시작했고 서둘러 결혼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두 번의 부도를 경험했고 그 와중에 건강도 잃었다. 남편은 언제나 돌봄 명령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돌봄을 하는지 관심조차 가지려고 노력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가사일이나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은 남자의 일로 보지 않거나 단순히 처리해야 할 직무로 인식했지, 세심하게 감정을 투자하거나 소비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김화진은 부모로 인해 자식들의 꿈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막내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했다. 그리고 건강이 더 악화하자 큰 오빠를 돌보던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일을 선택했으며, 천직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돌봄대화를 시작할 즈음 어두웠던 김화진의 표정은 대화가 끝날 때쯤에는 속이 후련하다는 듯이 환한 얼굴로 변했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기력한 삶에 대한 일종의 신세타령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나 염려뿐만 아니라 희망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규정하고 붙잡아 두려 하면 끊임없이 횡단하고 미끄러지는 강도의 힘으로 다가왔다.

1. 남존여비 가풍에서 ‘불온하지 않은’ 여자-되기

“저 솔직히 이제 투잡 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뺄스 한 장을 못 사 입어요. 그것을 억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배우고 싶고 등록금을 가지고 대학문 앞에서 뒤돌아섰던 사람이라, 이걸 우리 어머니는 그러시죠. 지금도, ‘지기를 복 지기들이 타고 나는 것이다.’ 당신은 가르치려고 생각을 안 했던 양반이라 당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또 이렇게 하시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김화진(50), 요양보호사)

전라남도 바다군의 한 농가에서 2남 4녀 중 다섯째 딸로 태어난 김화진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무던하게 학창시절을 보내는 듯했다. 고등학생이 된 김화진은 빠듯한 농가살림과 아들 중심의 집안 분위기에 언니들은 상상도 못한 대학생활도 꿈꿀 수 있었다. 그녀는 엄마와 시집간 언니들이 ‘욕망’ 할 수조차 없었던 대학교육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오빠가 교통사고로 집에서 온종일 돌봄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 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일터에 나가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오빠의 기저귀를 갈고, 씻기고, 먹이며, 어린 막넛동생을 돌보는 일은 주로 김화진의 몫이었다.

지천명에 이른 김화진이 되돌아본 십대의 마지막 3년과 이십대의 첫 시작은 “식물인간”이 된 오빠를 돌보고 하늘나라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죽은 큰언니는 화장해서 바닷가 어딘가에 뿌려져 기억조차 스멀스멀 사라져가는데, 오빠는 선산에 매장해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초하고 돌보고 있다며 “남존여비”라는 전통의 무게를 실감했다. 김화진은 언니는 죽은 뒤 바로 “꼬실라졌어요.” 하면서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쳐지는 여인의 삶을 덤덤히, 그러나 강한 어조로 묘사했다. 소위 70~80년대 ‘산업역군’이라는 호명 하에 남자 형제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의류·봉제공장에서 일했던 여공들의 자리는 90년대 들어 더 값싼 이주노동자나 불안정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하지만, 국가 주도 경제개발과 가족 특히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는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강변했다. 김화진은 그때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 세상을 향해 억눌렸던 감정을 소리쳐 외쳤던 시대라고 했다. 하지만 “촌구석의 보수적 성향”의 가족에서 태어난 김화진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집안 분위기와 경제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대학 진학은 차마 말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대학 생활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김화진은 진학 시험에 합격했다.

김화진은 등록금을 들고 대학교 문턱에서 되돌아왔던 그 날을 똑똑히 기억했다. 김화진 자신도 김씨 집안에서 자라서 어머니, 큰언니가 그랬듯이 그렇게 교육받고 ‘여공’으로, ‘아내’로 길들어졌다. 86세가 된 김화진의 어머니는 여전히 “지기들 복 지기들이 타고 나는 것이다.”며 그렇게 사는 것도 팔자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대학교 문턱에서 수백 번 고민했을 김화진은 달랐다.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김화진의 결정은 가족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결정 과정은 기존 가족의 전통이나 통념으로는 답을 수 없는 ‘불온한’ 욕망을 포함하고 있었다. 김화진은 “표출되지 못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묵묵히 하는 책임감만 이렇게 커지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라고 떨리듯 그러나 묵직하게 말을 이어갔다. 곧이어 김화진은 대학교 정문에서 합격통지서를 자기가 직접 찢어버렸다고 손으로 시늉을 하며 짧고 강하게 말했다. 김화진의 표출되지 못한 욕망은 사회생활을 통해 “지긋지긋”한 집을 멀리 떠나 남들보다 일찍 결혼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성실성’ 하나 보고 시작한 결혼생활은 만만하지 않았다. 아들 둘을 낳았고 남편과 농장을 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한 농장이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무너졌고, 노점상과 여러 부업 끝에 어렵게 빚을 내어 장만한 자동차정비소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산산이 부서졌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만 할 줄 알았지, “경제 개념”이 없었던 남편은 저축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자동차정비소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무너져 가는 사업을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었다. 남편의 성실함은 자녀교육이나 가사일을 함께 고민하는 것과는 별개였다. 그 사이 남편과 사업, 자녀교육 등으로 일상에서 부딪히는 일이 늘어났지만, 이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딸들에게 ‘무심’했고 응원하는 것조차 어색해했던 엄마를 닮기 싫었던 김화진은 최소한 자식들이 대학입학 때까지는 양육과 교육을 책임있게 수행하고 싶었다. 자식들이 하고 싶은 일이 부모 때문에 방해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학생회장 자리를 서울 지역으로 진학 준비 중인 친구에게 양보할 것을 선생님으로부터 권유받았을 때 반대의견을 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인적 욕망은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후회는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자동차정비소가 파산될 무렵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식당 일을 시작했던 이유도, 부업으로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것도 엄마로서의 책임과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이다. 김화진은 식당일이 육체적으

로 힘에 부치게 되면서 요양보호사 일을 조금씩 늘렸다. 막내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이혼을 선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였다. 이제 가깝게 지내는 친구 같은 애인도 생겼다. 두 아들은 군 제대 후 대학교 3·4학년에 복학했다.

2. 생명통치와 자녀의 무관심을 가로질러 횡단하기

“제가 보기로는 그때부터 여기까지 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한국적 돌봄은 이렇게 보면 장사꾼 장사가 돼버린 거죠.” (김화진(50), 요양보호사)

3년여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낸 오빠를 돌본 경험은 몸에 밴 돌봄기술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간을 존엄하게 돌볼 것인가라는 나름의 철학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김화진에게 방문요양 일이 당연히 “봉사”가 아닌 “밥벌이”이지만,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보니 팬데믹 상황은 시간적·심리적·육체적·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었다. “간병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며 자기돌봄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조건이 확립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최선에 설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합리화했다. 그리고 무력하게 축 늘어진 어투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라며 실망한 듯했으나 곧 생생한 낱것의 언어로 조목조목 돌봄부정의한 현실을 피력했다.

우선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 그리고 고용안정에 대한 보장이 여전히 부족함을 지적했다. 시간제 요양보호사의 경우 팬데믹 상황에서 확진 시 격리 입원 등으로 인한 실직에 대한 실업급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꼬집었다. 표준근로계약서도 여전히 존재하지 않은데다가 민간요양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의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있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김화진은 처우개선비·인지증수당·코로나19 위험수당 등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분배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했다. 종종 “아줌마”, “식모”, “도둑년” 등으로 불리며 요양보호사의 인격은 여전히 무시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를 필수노동자라며 추앙하는 듯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리 대상으로 존재하며 목소리 없는 그림자 노동자로 취급받고 있다고 했다.

동시에 지난 12여 년 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던 역사가 증명하듯이, 요양보호사의 정치적·법적·사회적 보호와 고용안정성 보장 및 적절한 보상을 담은 돌봄노동자의 ‘기본권 쟁취’는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라고 했다. 지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화진은 팬데믹 상황에서 경험한 돌봄 정책의 결여/부재라는 현실이 피할 수 없는 의료사회적 재난이라던가 어쩔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고 했다. 위기로 포장되는 사회, 위기의 언어는 마치 불가항력적인 일이 터진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은폐한다고 했다. 김화진은 지금의 팬데믹을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2015년 중증호흡기증후군 때처럼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론

무서웠지만 무작정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임을 이미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있었다. 실제로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2년, 요양보호사를 필수노동자라면서 추켜세우면서 돌봄 공동체를 만들자던 문재인 정부는 “치매수당”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까지 빼앗았다고 했다.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이 요양천국을 만든다며 윤석열을 찍어 불거예요” 라고 한 말에는 강한 결의가 느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바람재가복지센터에 주유비와 코로나19 위험수당과 관련하여 전화로 수십 번 문의했지만, 월급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발 빼는 모습에 배신감은 더 커졌다.

“나는 병가, 유급으로 처리해 줄 줄 알았더니, 우리는 시급제여가지고 그거 안 된대요. 시설 요양원들만 된다고. 그란 해도 막 이제 게거품을 물었는데 이 시설 요양보호사만 요양보호사냐, 나는 아니고 나는 엄연히 말하면 산재 아니냐? 이거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도 골머리 아픈 거야. 그런데 원래 센터들이 공단에 전화해 봐서 해 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공단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주고요 그냥 센터한테 넘겨버리고. 공단에서는 뭐라 하나면 시급제! 이제 시설 요양보호사는 월급제이기 때문에 예 유급이 된다는 거예요.” (김화진(50), 요양보호사)

2017년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한 것을 보고 김화진은 인지증과 사는 사람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며 문재인 정부에 희망을 걸어 보기도 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긴 이래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는 김화진의 힘없이 내뱉은 말은 실망을 넘어 절망의 정동을 느꼈다.

그렇지만 돌봄을 그만두겠다는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두 아들 모두 군 제대 후 자립해서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김화진 한 몸 돌보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김화진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정부도, 시설도, 자식도, 다른 사람의 시선도, 돈도 아니었다. “당신 어르신 돌아가시면 물어 버린다” 라는 자식들과 온종일 집에서 TV만 보다가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차마 매정하게 뿌리칠 수 없었다. “저수지까지만 보내 달라!” 고 방문할 때마다 애원하는 어르신이 마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은 모습을 보며 다시 한 번 정신을 가다듬었다. 마을에 확진자가 생겼다는 소문에 “지나가는 개 한 마리” 보지 못했다며 살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죽고 싶다!” 외칠 때는 진짜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서 먼저 죽겠다는 표현임을 김화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청춘이 만개하기도 전에 식물인간으로 앓아누워 3년을 버틴 오빠의 삶이 겹쳐지는 것은 우연이 아닌 듯싶었다. 김화진은 어르신보다 보호자 가족들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2020년 봄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할 즈음 “아는지 모르는지” 돌봄을 잠시 중단해 달라는 자식들의 전화를 받을 때만 해도 그들이 고향에 직접 내려와 어르신을 보건소에 모시고 백신접종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바로 이웃집 혹은 차로 30분 거리에 살면서 어르신이 사는 집 마당에 사람 키만큼 자란 풀을 보고도, 수해가 나서 흙더미가 대문과 마당에 수북이 쌓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기대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다. 자기 부모를 “유기” 하고 “학대” 하는 장기요양수급자의 자식을 대신해서 어르신의 백신

접종을 도운 것도 김화진이었다. 실제로 주말에 이뤄지는 방문 목욕 1시간을 제외하고 주5일 하루 2시간 동안 인지활동·가사·일상생활·신체활동·정서 지원 등을 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 데 백신접종은 차원이 다른 부담이었다. 백신접종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했던 지원활동을 미루거나 식사를 거를 정도로 위급하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먼단위 보건소 지부가 아니라 군 보건소가 있는 읍내까지 이동해야 된다는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해도 최소 이동거리만 1시간이 필요했다. 여기에 기다리는 시간을 더하면 최소한 2~3시간이 필요한 데 2시간 내 끝내야 했다. 게다가 “내 기름값 꼬실러 가면서” 백신접종을 도와야 했다. 백신접종 후 해열제로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을 구입해야 하는 것도 김화진의 일이었다. 걱정스러운 것은 돈과 시간뿐이 아니었다. 3차까지 백신접종을 하는 동안 접종자, 비접종자, PCR검사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줄이 섞이는 아찔한 순간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으며, 그 위험 부담도 오로지 김화진의 몫이었다. 2022년에 들어와서 김화진은 매주 1번 이상의 PCR검사를 했으며, 이제 자가검사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에 반드시 하는 일상이 되었다. 김화진은 어르신을 잃는다는 것이 일자를 잃는 단순한 경제 문제라면 오히려 편하게 감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버려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아니! 보지 않고도 흔히 알 수 있는 것을 모른 채할 수 없다”며 묵묵히 책임감만 커지는 것을 자신의 성향 탓으로 돌렸다.

V. 상응과 조율: 생성적 차이로서의 정동적 욕망

앞 장에서 아들 중심 가족에서 태어나 관습적으로 반복되는 여성되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김화진의 생애과정을 제시했다. 그리고 김화진이 돌봄을 수행하면서 겪은 요양보호사의 권리·존중·공정·정의의 결여/부재가 팬데믹 상황에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일상화된 부정의임을 밝혔다. 하지만 김화진은 돌봄부정직한 상황과 갈등하지만 조율하기도 한다. 김화진은 주어진 시간-공간-물질적 한계를 지니지만, 그녀가 마주하는 관습·제도·정책을 포함하는 (비)물질적인 조건들과 상응하고 부대끼면서 다른 신체들과 소통하고 횡단하며 잠재적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을 드러낸다.

1. 불온한 외로움의 지속과 연대의 가능성

“이제 저는 이런 저런 면 이렇게 이거는 FM대로 딱 그것만 이렇게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힘들어 지더라고요. 이게 나의 고집이고 이게 나의 자존감이라고 지켜야 되는 데, 근데 살아보니깐요, 훌렁훌렁훌렁 넘어간 사람들이 잘 살아요.” (김화진(50), 요양보호사)

김화진은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벗어나고자 분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면 꿈은 언젠가 이뤄진다는 희망이 있었다. 2022년 3월 방문요양을 하던 중 돌봄대상자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

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행스럽게도 김화진이 방문한 다른 돌봄대상자가 감염되지 않아 요양보호사가 마을에 코로나19를 퍼트렸다는 소문은 다소 진정되었다. 정부에서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할 것을 규정했으나, 바람재가복지센터는 최소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라고 했다. 열도 하나 없는데 호텔에서 7일간, 집에서 3일간 격리했다. 오랜만에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 먹고 편하게 쉬는 “천국” 같은 생활이었지만 “하루 별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 10일 동안 유급수당 없이 지낸다는 것은 “지옥” 보다 더 불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바람재가복지센터 사무장에게 “입에 게거품을 물” 듯이 성난 목소리로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시간제 노동자는 코로나19로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김화진도 주휴수당, 유류지원비, 코로나19 위험수당 등이 시행되는 과정을 보며 시간제로 근무하는 자신에게 혜택이 쉽게 주어지지 않으리라고 예상했었다.

그렇지만 김화진이 전화비를 아끼지 않으면서 바람재가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군 주민복지과 등에 조목조목 따졌던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요양보호사의 어려운 노동 환경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들 세 기관에 불평불만을 하소연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했다. 하늘군 내 요양보호사들이 개인연결망을 통해 20여개가 넘는 재가복지센터의 급여·수당·복지혜택 등을 비교하면서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곳을 찾아가듯이, 하늘군 재가복지센터협의회를 통해 센터장들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발굴하고 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말썽 많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보가 공유된다는 소문은 김화진도 알았다. 얼마 전 하늘군에서 유일하게 노조에 가입했던 요양보호사가 노조의 도움으로 어렵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하늘군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었다. 비슷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하늘군의 주민복지과에 고충을 신고하면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샌가 센터장에게 전달되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을 오랜 경험으로부터 터득했다. 김화진은 당연한 권리를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강렬하게 주장하면서 ‘적정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키면 무조건 하는 바보가 아니며 결코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뺨으면 꿈틀거릴 줄 아는 사람임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녀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밴드에 가입해서 관련 정보를 얻고 문의도 하지만 노조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듯 김화진이 매일 마주하는 돌봄현실은 끊임없는 갈등과 타협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었다. 실제로 김화진은 3인 가족의 가장이며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정기검진이 필요했다. 요양보호사 일만으로는 두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에 두 아들에게 일찌감치 경제적으로 독립할 것을 가르쳤다. 하루에 시간을 잘 배분하면 4~5명의 어르신을 돌볼 수 있지만, 김화진은 돌봄노동을 오전 6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마무리한다. 돈도 돈이지만 “2명 이상의 어르신을 존엄하게 돌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험을 통해 터득한 김화진의 돌봄철학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부모님을 멀리서 전화로 돌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식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바람재가복지센터에 전화해서 보건소에 알리고, 결국 자식을

설득시켜 어르신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도 김화진이었다. 물론 어르신이 자식이 사는 마을 근처 요양병원으로 입원한 후 김화진은 한동안 일자리 없이 지내야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김화진이 3인 가구에서 벌 수 있는 최대금액 내에서 합법적으로 시간제 근무를 선택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는 위태롭게 보인다. 코로나19 감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아팠고 항체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다른 일용직 친구가 말해 준 “딱 감기약 먹고 그냥 일해 버린다”라는 조언을 허투루 듣지 않겠다는 말은 위태로움을 넘어서 절박한 외침으로 들렸다.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으면 법이 정한 자격리를 해야 하지만 어차피 몸살도 열도 없었던 김화진은 10일간의 무급휴가를 받느니 감기약 먹고 일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김화진이 이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지만,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임은 분명해 보였다.

2. 인지증의 인식론적-존재론적-윤리적 위험

“인지증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나사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증이 오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부분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진지해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인상을 쓰고 그렇게 이게 평가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르신이 이렇게 날이 밝거나 그러면 유머밖에 안 통해 그걸 알았어요. 유머밖에 안 통해요. 전혀 뜻밖에 제가 요양원에 있을 때 그걸 알았어요. 저런 데 막 구렁이가 있대요. ‘시렁시렁’ 계속 그래요. ‘위메 구렁이 거메브네.’ 그래요. 제가 그러다 갑자기 ‘할렐루야’ 해요. 그것에 어떤 논리가 있다고 그러거나, 병증이라거나 외면한다거나 적극적인 개입을 하려거나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개입할 거예요. 가만 놔둬야지. 근데 하면 직빵이더라고요. ‘주여,’ 하면 ‘교회 댕겨?’ 짠한 듯 물어요. ‘저 교회 안 다녀요.’ ” (김화진 (50), 요양보호사)

팬데믹 상황이라고 돌보던 어르신들의 증상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난 2년여의 팬데믹 상황에서 대부분 인지증과 사는 어르신은 외출도 못 하고 만나는 사람도 자식들(대개는 전화)과 방문요양보호사로 제한됨에 따라 우울·의심·욕설 등은 더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김화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줘야” 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큰오빠를 3년간 돌본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더럽다고 못 하고 기저귀 못 갈아입힌다고 못 하는” 선생님들은 오래 일하지 못한다며, 김화진은 어르신들을 씻겨 놓으면 좀 예쁘냐며 내면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목욕 중에 대변을 보는 것이 무슨 큰 문제냐며 아무렇지 않게 그냥 쓸어내린다며 외부의 시선으로 “평가질”을 하면 안 된다고 열변을 토했다. 김화진은 나에게 큰오빠를 돌본 경험이 어떻게 인지증과 사는 어르신의 돌봄과 연결되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둘 사이를 끊임없이 횡단하며 사람다움, 사람다운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김화진의 돌봄철학이 어슴푸레하지만 강하게 밀려왔다. 그것은 인지증과 사는 사람의 세상이 옳거나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마도 몸이 아파 축 늘어지고 볼품없고 힘없이 누워있는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김화진과 같이 삶을 갈망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지 않을까 짐작할 뿐이었다. 죽어가는 큰오빠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본 그녀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며, 누구보다도 세상을 즐길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몸소 실천하는 것 같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화진은 인지증과 사는 어르신이 담장을 가리키며 구렁이가 “시렁시렁” 넘어간다고 하면 “위메, 구렁이 거메브네” 하며 맞장구를 쳤다. 인상을 쓰고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몸으로 체득했다. 익살을 부리는 광대가 되어 유머를 통해 인지증과 사는 사람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갑자기 “할렐루야!” 하면서 손뼉을 치고 한바탕 난리를 쳤다. 그러자 한참을 악다구니를 치는 것 같았던 어르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 댕겨?” 하면서 김화진을 측은한 듯 안쓰러운 듯 바라보다가 장난인 줄 알고 서로 배꼽을 잡고 웃는다고 했다. 이것은 김화진의 말대로 돌봄은 어떤 정연한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한 이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때론 오해와 위협스러울 수 있더라도 인지증과 사는 사람을 따르며 이성의 눈을 잠시 감는 것이었다. 기억력 · 이성 · 판단력 · 언어 등의 상실을 이유로 “치매” 라는 낙인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이성의 언어로 소통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다만 인지 중심 사회에서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몸의 언어로 표현되는 그 ‘말’ 들이 품고 있는 강도, 태도, 느낌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가까운 부모자식관계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알아듣는 것처럼 말이다.

무엇보다 김화진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인지증과 사는 사람들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도 벗어나고 싶었던 고향 집, 학교, 회사, 마을에서 체화되어 몸에 찌들하게 달라붙은 윤리적 “책임” 때문이었다. 물론 거기에는 분명히 가부장적 골레로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혐오도 있었지만, 그 혐오를 넘어 생명에 대한 경외심으로 다가오는 윤리적 실천을 뿌리칠 수 없었다. 주말을 쉬고 매주 월요일 날이면 한바탕 야단법석을 떠다고 했다. 자식들에게 주말에 밥 잘 해 먹었다며 전화로 말하지만, 금요일 날 해놓은 밥이 그대로라고 했다. 연탄불은 꺼져 있는 날도 많았고 집안에 상비약은 찾을 수가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연탄도 안 갈아 그러니까 못 갈아! ... 밥이 없어도 밥을 할 줄을 몰라! 아예 누워만 계셔! ...집에 해열제 하나도 없어요. 내 약 갖다 드리고 내 마스크 주고 그래요. 말을 했는데도 안 돼요. 상비약 이번에 설사가 나와 읍내까지 사러 나왔어요. 먼 단위는 약국이 없잖아요. 진통제 같은 거를 이제 제 거 이렇게 해서 ... 코로나 검사할 때요. 제가 제 돈을 다 타이레놀 사서 어르신들 돌렸어요.”
(김화진(50), 요양보호사)

김화진과 인지증과 사는 어르신과의 관계는 비어있는 밥통, 곰팡이 핀 밥통, 똥 묻은 바지, 똥칠이 난자한 방바닥, 뻥한 눈, 퀴퀴하고 지린 냄새 등으로는 절대로 환원 불가능한 어떤 끈적 끈적한 친밀감을 넘어 윤리적 책임감으로 이어졌다. 한편으로는 자본축적과 가부장적 지배질서에 뿌리내렸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기만의 ‘좋은’ 돌봄 가치를 모색하고 조율하는 실천의 장이라고 볼 수 있었다.

VI. 정동적 연결 (불)가능성

팬데믹 상황을 예외적인 의료사회적 재난이라거나 한국적인 “문화” 혹은 이데올로기 문제로 환원해 버리면 오류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여전히 부딪히고 갈등하며 완료되지 않은 역동적인 자원의 배치를 간과할 수 있다(Chekar and Kim, 2022: 11). 불안정한 고용, 퇴직금·사대보험·코로나19 위험수당·실업수당의 불평등한 적용, 민간 돌봄기관에 대한 정부 관리의 허술함 등이 단순히 팬데믹 위기로 포장되는 순간 구체적인 인적·제도적·행정적인 미비 혹은 없음의 현장 목소리를 포획하고 은폐하는 것이다. 실제로 요양보호사라는 직명을 명시한 「돌봄기본법」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관련자 회의에 당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의 돌봄 위기를 마주하며 사회 곳곳에서 돌봄을 사적행위를 넘어 공적 노동, 공적자원으로 재구성하고 돌봄공동체를 만들자는 논의(김희강, 2022)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실천으로 이어진 적은 아직 없다.

돌봄대화를 통해 김화진이 표현하고, 수행한 것은 어떤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경제 활동, 도덕적인 실천, 불의와 부정을 보고 참지 못하는 정의의 실천에 대한 결의가 아니었다. 오히려 부재의 정동적 실천이 왜곡되거나 조작되거나 은폐되는 상황적이며, 관계적이며, 비결정적인 맥락을 ‘자연스럽게’ 드러냄으로써 김화진에게 보이지 않게 행사되는 힘과 통제력을 포착할 수 있었다. 김화진이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센터장과의 상호의존적이면서 얽히고설킨 역동적인 정동적 관계를 훑어볼 수 있었다. 일상과 노동 현장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김화진의 실망·배신감·분노의 정동을 돌봄대화에서 표정으로, 말씨로, 몸짓으로 보여주었다. 이 점에서 K방역의 성공을 공공과 집단을 우선하는 유교 문화, 권위주의적 정치권력, 최첨단의 IT 기술 덕분이라는 신화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취약한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지키게 할 수 있었던) 김화진의 역동적인 욕망의 배치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 시점에서 김화진의 욕망이 혹시 자크 라캉(1994)의 표현처럼 타자의 욕망이라거나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담론들이 자본과 국가의 생명권력에 의해 훈육되어 왜곡되거나 은폐된 것일 수 있다는 미셸 푸코(2012)의 논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태롭고 취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화진이 노동현장을 지키는 이유가 감시자 없이도 작동하는 (비)물질적인 생명권력에 길들여져 신체화된 인간성의 작동인지 미시적인 정치권력의 작동 매커니즘을 밝혀야 한다. 이는 동시에 세대·계급·지역·젠더에 따라 분화되는 욕망을 하나로 일반화하기보다는 이질적이며 강도가 다른 욕망의 사회적 관계의 배치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요약하면 김화진에게 있어 결여/부재가 동반하는 기억·감정·감각·상상·기대는 마주하는 상황과 조건에 열려 있기에 비결정적·우연적·참여적인 마주침을 통해 생성하고 발전하는 끈적끈적한 정동적 욕망으로 표현되고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불온하지 않은’ 여자-되기로서

의 돌봄노동자-되기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선재하는 주체와 객체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의 결과로 그 양태가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 횡단하는 신체들 사이 “내부-작용(intra-action)”을 통해 역동적으로 재구성된 것이다(이지선, 2021: 238; Barad, 2007). 그리고 아메드가 언급했듯이 정동은 대화의 과정에서도 행복(혹은 불행)한 대상과 조우하면 끈적끈적한 흔적을 남겼다. 필자의 인정을 추동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목소리의 떨림과 높고 낮음, 강약에서 그리고 움직이는 몸동작에서 다른 강도로, 때론 내밀하게 때론 강밀하게 필자에게 다가와 정동적 공감을 일으켰다. 때론 장소의 분위기까지 변환시킬 만큼 강렬했다. 이런 의미에서 김화진의 정동적 욕망은 언어와 기호로는 규정 불가능하고 분절하기 힘든 신체들 사이에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하나의 사고 방법이 자 지식의 한 종류였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김화진의 주관적 경험, 특히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적·(비)물질적 상황과 마주하면서 생성한 차이를 통해 드러나는 역동적인 욕망의 배치를 지도화했으며, “응답-능력(response-ability)”으로서 수행적 행위성(performative agency)으로 재조명했다(박신현, 2023: vi).

VII. 결론

본 연구는 안정된 고용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노동, 공평한 사회복지 등의 결여/부재가 더욱 도드라져 드러나는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노동자들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낸 원동력은 무엇일 까라는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를 위해 필자는 결여/부재는 단순한 없음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삶의 과정을 통해 겪는 개인의 관계적·상황적·이질적인 경험을 지칭하는 “동사”로 이해했다(Jeong, 2021: 36). 좀더 구체적으로 부재 혹은 상실이 무엇인가 혹은 어떤 의미 인가를 묻기보다는 일상의 돌봄 과정에서 그것이 하는 것, 즉 표현적이며, 수행적인 정동적 실천에 주목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비물질적인 부재의 정동을 어떻게 접근하고 알 수 있으며 확인 가능한가라는 방법론적·인식론적·존재론적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체제에서 작동하는 권리·존중·사랑·공정·정의의 결여/부재가 김화진의 일상적 돌봄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담론적·(비)물질적 정동적 실천의 관점에서 추적하고 물질화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이는 한편으로 전라남도 하늘군의 한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나 관념이 어떻게 강화 혹은 은폐되는 과정을 제시하는 작업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구조·체제·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수동적인 돌봄수행자의 모습이 아니라 부재에 대한 기대·실망·비판의 과정에서 묻어나는 정동적 흐름·움직임·에너지를 통해 끊임없이 생성하고 누적되는 잠재적 행위성을 실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이한 사회적 관계와 질서에 따라 강도의 차이를 통해 드러나는 비물질적인 결여/부재의 물질화를 정동의 관계적·비결정적·생성적 특징을 중심으로 밝혔다.

김화진에게 지난 12여 년 동안 요양보호사로서 일하면서 몸소 경험했던 돌봄부정의한 상황이

팬데믹 동안 도드라진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놀랄 일도 아닌 오래된 돌봄부정의 현실이 팬데믹 사건을 계기로 현실화되었을 뿐이었다. 당연히 기존의 인지·정서·가사·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백신접종 등 팬데믹 관련 돌봄이 추가되어 업무량은 두 배 이상이 되었다. 보건소 왕복을 위한 주유비와 추가 시간, 해열제 구입, 기다리는 동안 감염 위험에 대한 부담도 추가되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오빠를 돌보면서 존엄한 인간의 돌봄이란 어떤 것인가를 몸소 깨달은 그녀는 정부와 돌봄수급자 자녀의 무관심, 학대, 방치를 눈감고 모른 채할 수는 없었다.

한편 김화진이 바람재가복지센터·군 주민복지과·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여러 번 묻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얻는 교훈이라면 좁은 지역사회에서 다루기 까다로운 사람으로 낙인찍히기보다는 “홀렁홀렁홀렁” 사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팬데믹 기간에 특히 도드라졌던 돌봄부정의 눈감으란 소리가 아니며, 마주하는 사회적 관계와 질서에 따라 융통적인 정동적 실천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동시에 이는 지난 12여 년 동안 은폐되고 왜곡되는 돌봄부정에 관한 정동을 훑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렇기에 사라지고 인정받지 못했을 김화진의 부재의 정동적 실천은 단순한 수동적인 돌봄수행자로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개인의 제한된 한도 내에서 좌절도 하지만 끊임없이 실험하고 분투하는 부재의 행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성을 김화진의 정동적 ‘돌봄합리성’(Waerness 1987)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이는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도덕적 합리성과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행위역량이 아님을 증명한다. 오히려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갈등하며 대립하고 상충하면서 조율하는 관계적 마주침과 내부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단일 사례라는 한계를 넘어 더 많은 다른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이론이 아닌 현장, 단일한 사회이론이나 담론이 아닌 어셈블릭적 접근과 관점을 통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권명아, 2012,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한국 사회의 정동을 묻다』, 갈무리.
- 권명아, 2022, 「보편적 어펙트 연구 비판과 젠더.어펙트 연구: 방법론과 지적 원천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33: 151-182.
- 김관옥, 2020, 「“과일 바꾸니, 식혜, 붉은진드기 그리고 벽”: 코로나19 사태 속 콜센터 상담사의 정동과 건강-어셈블리지」, 『한국문화인류학』, 53(3): 37-83.
- 김관옥, 2022, 「“뭐라도 하려는” 그녀들: 팬데믹 시기 콜센터 여성상담사의 노동쟁의 속 정동정치」, 『한국문화인류학』, 56(1): 87-138.
- 김지향·한숙정, 2021, 「코로나19 대유행 시 일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5(1): 33-46.
- 김정희·김광병, 2019,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저평가와 인권 훼손: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12(1): 63-80.
- 김희강, 2022, 『돌봄민주국가』, 박영사.
- 김희강·박선경, 2021, 「코로나19, 돌봄부정의, 돌봄포용국가」, 『한국행정학보』, 55(2): 55-80.
- 미셸 푸코, 2012, 심세광 옮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난장.
- 박신현, 2023, 『캐런 바라드』, 김복스캠퍼스.
- 박언주, 2020, 「인간 존엄의 조건으로서의 상호의존과 연결성: 치매인의 경험세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8): 429-437.
- 브라이언 마수미, 2018, 조성훈 옮김, 『정동정치』, 갈무리.
- 사라 아메드, 2019, 성정혜·이경란 옮김, 『행복의 약속: 불행한 자들을 위한 문화비평』, 후마니타스.
- 석재은, 2018, 「돌봄정의(Caring Justice) 개념구성과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 『한국사회정책』, 25(2): 57-91.
- 앨리 러셀 흑실드, 2009, 이가람 옮김, 『감정노동』, 이매진.
- 이지선, 2021, 「물질과 의미의 물의(物議) 빛기」, 『시대와 철학』, 32(1): 233-260.
- 임종석·정의철, 2023, 「팬데믹시대 요양보호사 돌봄노동과 사회적 소통에 관한 질적 연구: 지오르지(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2(1): 373-425.
- 자크 라캉, 1994, 권영택·민승기·이미선 옮김,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 정종민, 2022, 「비접촉시대에 돌봄노동자의 삶과 노동의 위태로운 기술로서 정동적 부정의」, 『한국문화인류학』, 55(3): 321-363.
- 조창완·안정희, 2022, 「노인 돌봄 생활지원사의 돌봄 노동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인문사회21』, 13(1): 1629-1644.
- 케슬린 린치 외, 2016, 강순원 옮김, 『정동적 평등: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한울.
- 최보람,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유무가 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6(9): 1619-1633.
- 함선유, 2020, 「돌봄직의 임금에 관한 중단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2(2): 429-451.
- Bille, Mikkel, Frida Hastrup and Tim Flohr Soerensen, 2010, *An Anthropology of Absence: Materializations of*

- Transcendence and Loss*, NY: Springer.
- Barad, Karen, 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Bayram, A. Burcu and Holmes Marcus, 2020, “Feeling Their Pain: Affective Empathy and Public Preferences for Foreign Development Aid” ,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6(3): 820-850.
- Chekar, Choon Key and Kim Hyomin, 2022, “COVID-19 Exceptionalism: Explaining South Korean Responses” ,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16(1): 7-29.
- Gorton, Kristyn, 2008, “Desire, Duras, and Melancholia: Theorizing Desire after the ‘Affective Turn’ ” , *Feminist Review*, 89(1): 16-33.
- Hardt, Michael, 1999, “Affective Labor” , *boundary 2*, 26(2): 89-100.
- Jeong, Jong-min, 2021, “Co-creative Affordance: Rethinking ‘Beyond Loss’ “ in Dementia through Co-dwelling” , *Medical Anthropology*, 40(1): 35-49.
- Waerness, Kari, 1987, “On the Rationality of Caring” In: Sassoon, A. S. (ed.) *Women and the State: The Shifting Boundaries of Public and Private*. London: Routledge, 207-234.

Affective Desire of Lack/Absence in Dementia Care in the Pandemic: a Case Study of a Care Worker in Korea

Jeong, Jong-m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ubject

Social Science, Anthropology, Medical Anthropology

Key words

Care Conversation, Care Injustice, Care Worker, Absence(lack), Affective Connectivity

Summary

This study analyzes the affective desires of care workers facing situations of care injustice, in which adequate compensation and social protections are lacking or absent. The COVID-19 pandemic has led to the moral breakdown that calls for caring for others while setting aside the health and safety of oneself and their family. This study details a conversation with a care worker who struggled to work while moderating and abstaining from politicizing the above-mentioned issues. In this process, the ontological, ethical, and political struggles of the care worker are tracked, mapped,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affect. Accordingly, this study exposes invisible techniques of neo-liberalism that are internalized in her daily life and labor. Furthermore, the trajectory of affective desires as an ontological force was analyzed. In doing so, it is possible to suggest connection and solidarity with other affective beings, which are fragile, but are constantly revealed with generative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co-corresponding and attuning, rather than being tamed by absence.

접 수 일 : 2023년 4월 9일

심사완료일 : 2023년 5월 9일

게재확정일 : 2023년 5월 9일